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5)(2/26/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6 장 탁월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독서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얻어짐, 1-4 절

창 3:17 -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롬 7:23-24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 <제자> 주여, 하늘에 속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염려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마치 전혀 염려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은 그가 감정도 없고 무감각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에도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2. 지극히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생의 염려”로부터 나를 지켜 주셔서, 그런 염려들에 지나치게 휘말려들지 않게 해 주시고, 육신의 온갖 필요들로부터도 나를 지켜 주셔서, 육신의 쾌락에 붙잡혀 포로가 되지 않게 해 주시며, 영혼의 온갖 걸림돌로부터 나를 지켜 주셔서, 그런 것들과 싸우느라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나로 하여금 헛된 것들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기를 쓰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한 저주로 인해서(창 3:17; 롬 7:23-24) 형벌을 받고 있는 주의 종의 영혼을 짓누르고 훼방하여 영적인 자유에 이를 수 없게 하고자 하고, 또한 실제로 자주 이를 수 없게 하는 저 참담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3.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우신 나의 하나님, 육신적인 모든 위로가 내게 쓰디쓴 것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이 내 앞에 현세에서 즐겁고 좋은 어떤 것들을 두어서 나를 유혹하여,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육신적인 위로를 붙잡는 쪽으로 끌고 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혈과 육이 결코 나를 이기게 하지 마시고(롬 12:21), 세상과 그 덧없는 영광이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며, 마귀와 그 교활한 꾀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끈기를 내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위로 대신에 지극히 향기로운 주의 성령의 기쁨 부음을 주시고, 육신적인 사랑 대신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4.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비롯해서, 육신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온갖 것들은, 깨어 있는 영혼에게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얽매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과 단지 쾌락을 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육신은 영혼을 거슬러 일어나서 오만방자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지나치게 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 자유함이 주어진다. 요 8:31-32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에서 “알지니”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안다는 것이다. 결국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과 진리를 온 몸으로 아는 사람, 더 나아가 말씀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 때의 자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서의 자유함,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자유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근원적인 자유이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억눌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울은 고후 3:17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자유를 누린다. 이 때의 자유 역시 구원으로서의 자유,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함께 자유의 은총을 주신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때의 자유는 **(1)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주님을 따르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의 자유이다.** 진정한 영적 자유자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 놓고 주님을 받아들인다. 내 생각을 내려 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 내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거룩한 욕구에 이끌린다. 나로부터 벗어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 자유를 누린다.

(2) 죄를 멀리하며 늘 회개할 때 자유함을 누린다. 내 마음에 자유하는 마음이 없는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히 12:1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 죄악의 찌꺼기와 쓴 뿌리가 남아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없다.**

(3) 정욕과 욕심을 다스리고 내려 놓을 때 자유함을 누린다. 욕심을 가진 우리의 가장 큰 영적 대적 중의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다. 베드로는 벰전 2:11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했다. “거슬러 싸우는”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과 대적하여 싸우는’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은 내가 싸워야 할 내 안의 대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 5:24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사람은 영적 자유를 누린다.

(4) 이 세상의 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세상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길 때 자유함을 누린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긴밀히 교통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좀 같이 갇아 먹는 이 세상의 염려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은 마 13장에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마음 밭(길가, 흩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을 알려 주셨다. 이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마 13:22)**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가 많고 재물에 유혹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난다 하더라도 그 가시떨기에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물질을 비롯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주님만을 온전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골 3:2)** 않는 사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위로로 사는 사람은 영적 자유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남아공화국 김영무, 탄자니아 박재덕, 에티오피아 박종국, 이기형, 가나 양광균, 케냐 최인호)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한반도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